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한·중·일의 신북방지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 현황

기업대출 증가와 신용위험

KfW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노 코드(No-code) 소프트웨어 현황 및 전망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한·중·일의 신북방지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 현황	1
기업대출 증가와 신용위험	4
KfW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6
노 코드(No-code) 소프트웨어 현황 및 전망	8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0
--------------------	----

한·중·일의 신북방지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 ◆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중국은 러시아부터 LNG와 중앙아시아로부터 가스관(PNG)을 통해 가스를 수입하는 등 수입처 다양화
- ◆ 한국은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을 달성을 위해, 일본은 발전연료용 에너지자원 확보 등을 위해 신북방지역으로 진출
- ◆ 한국은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정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 부문이나,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해 기존 가스전의 지분 인수 등으로 진출 검토

□ 최대 수입처인 중동지역의 잦은 분쟁으로 인한 수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북방 지역*으로부터 원유·천연가스 수입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14개 대상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몽골 및 중국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한국과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은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중국은 LNG와 가스관(PNG, Pipeline Natural Gas)*을 통해 수입

*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중국 가스관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수입. '19년 중앙아시아 3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총 천연가스 수입량의 32.5% 차지

- '14~'19년 한국과 중국의 對신북방지역 연평균(CAGR) 천연가스 수입량은 각각 3.6%, 10.4% 증가, 일본은 5.4% 감소

한·중·일 3국의 對신북방지역 천연가스 수입 현황

			'14	'15	'16	'17	'18	'19	CAGR('14~'19)
천연 가스	한국	수입량, 10억m ³	2.6	3.5	2.7	2.4	2.6	3.1	3.6
		비중, %	5.1	8	6.2	4.7	4.3	5.6	-
	중국	수입량, 10억m ³	28.5	29.6	34.1	36.8	46.3	46.7	10.4
		비중, %	48.9	49.8	46.4	39.7	38.2	35.2	-
	일본	수입량, 10억m ³	11.5	10.5	9.5	9.9	9.4	8.7	△5.4
		비중, %	9.5	8.9	8.8	8.7	8.3	8.2	-
원유	한국	수입량, 백만톤	5.9	9.0	6.1	9.1	13.3	12.3	15.8
		비중, %	4.5	6.3	4.1	5.8	8.5	8.3	-
	중국	수입량, 백만톤	45.8	47.6	56.7	63.6	74.4	81.9	12.3
		비중, %	12.3	14.2	14.8	14.4	16	16.1	-
	일본	수입량, 백만톤	15.6	15.2	10.4	10.3	8.5	8.8	△10.8
		비중, %	7.3	9.1	6.2	6.3	5.6	6.0	-

주 : 비중은 국별 신북방지역으로부터 원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을 총 원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으로 나눈 비율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각 연호

- 한국과 중국의 '14~'19년 對신북방지역 원유 수입량은 연평균(CAGR) 15.8%, 12.3% 증가, 반면 일본은 10.8% 감소
 - 일본의 對신북방지역 원유 수입량 감소는 미국산 원유 수입 증가*가 원인
 - * 일본의 미국산 원유 수입은 '16년 0.4백만톤에서 '19년 3.1백만톤으로 증가, 이외에 중동지역의 UAE, 쿠웨이트에서 소폭 증가

□ 신북방지역에서 한·중·일의 에너지자원 확보 각축전 심화

- (한국) '30년까지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 40% 달성을 위해 신북방지역 4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협력 추진
 - (천연가스) 우즈베키스탄의 수르길, UzunkuiTuarkyr Block 등 4개 가스전 진출
 - 한국컨소시엄*은 '12년 수르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여 '14년 생산 시작하였으며, 생산된 가스는 내수 및 우스투르트 가스화학플랜트 원료로 공급
 - * 한국 컨소시엄 지분은 총 30%, Lotte Group 24.5%, 한국가스공사(Kogas) 22.5%, GS E&R 3%
 - (원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하였으나, 대부분 사업 철수
 - '08년 (주)예당에너지가 빈카(VINCA)의 지분 70%(2,500만달러)를 인수하여 진출하였으나, 본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 파산으로 사업 철수
 - 카자흐스탄의 Akzhar·Besbolek·Karataiky·Alimbai 유전은 생산 중이며, 잠빌유전은 매장량 평가 실패로 2.5억달러 손실을 보고 '16년 사업 철수
- (중국)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지분 인수, 합작, 단독 등으로 진출
 - (천연가스) 러시아 LNG 사업, 중앙아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개발·생산으로 진출
 - 러시아의 야말 LNG-1 사업, 북극 LNG-2 사업에서 노바텍 지분 인수 진출
 - * 야말 LNG 1 사업의 지분 29.9%(CNPC 20%, 중국 실크로드 펀드(Silk Road Fund) 9.9%), 야말 LNG-2(Gydan LNG)의 지분 20%(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10%,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ODC) 10%)
 - (원유) '13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 지분 인수로 진출한 것이 대표적

중국의 對신북방지역 진출 현황

	진출국	유·가스전명	기업 및 지분	단계
천연 가스	카자흐스탄	Kalamkas/Zhetybai	CNPC 50%	생산
	우즈베키스탄	Aral	CNPC 33.3%	-
	투르크메니스탄	Saman-Depe, Altyn Asy	CNPC	생산
	아제르바이잔	Kursangi, Karabagli	Sinopec, CNPC 50%	생산
원유	카자흐스탄	Kashagan	CNPC 8.33%	생산
	투르크메니스탄	Gumdak	CNPC	생산
	아제르바이잔	Kursangi, Karabagli	Sinopec, CNPC 50%	생산

자료 : BMI, 'Kazakhstan Oil & Gas Report', Q2 2020; 'Uzbekistan Oil & Gas Report', Q2 2020; 'Turkmenistan Oil & Gas Report', Q2 2020; 'Azerbaijan Oil & Gas Report', Q2 2020

- (일본) 신북방지역 투자로 발전연료용 에너지자원 확보
 - (천연가스) 러시아 북극지역과 사할린 LNG 사업, 사할린과 아제르바이잔 개발·생산 진출
 - 러시아 북극 LNG-2(Gydan LNG) 사업*, 사할린 Lunskeye, Piltun- Astokhskeye 해상 가스전 생산 및 LNG 액화공장 확장 프로젝트(Train 3 확장) 진출
 - * 일본은 10%(미쓰이 2.5%,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EMEC) 7.5%)를 인수하여 진출
 - 아제르바이잔의 Azeri-Chirag-Guneshli 가스전에 탐사단계부터 진출하여 현재 생산
 - (원유) Inpex(Inpex Corporation)가 카즈무나이가즈(KazMunaiGaz)로부터 카샤간 유전의 지분 7.56% 인수 진출

일본의 對신북방지역 진출 현황

	진출국	유·가스전명	기업 및 지분	단계
천연가스	아제르바이잔	Azeri, Chirag, Guneshli	INPEX 11%	생산
원유	카자흐스탄	Kashagan	INPEX 7.56%, Itochu 4.3%	생산

자료 : BMI, 'Kazakhstan Oil & Gas Report', Q2 2020; 'AzerbaijanOil & Gas Report', Q2 2020

□ 한국은 신북방지역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기존 가스전 지분 인수, 투 트랙(Two Track) 방식 진출 지속 추진 필요

-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 원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정책으로 수요 감소와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천연가스 투자에 비해 높은 리스크 발생
- 기존 가스전을 가진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M&A 진출로 신규 가스전 개발에 따르는 투자 리스크 감축
 - 중국은 카자흐스탄 가스전 지분과 러시아의 LNG 사업 지분 인수로 진출
- 신북방지역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는 업스트림(up stream)과 다운스트림(down stream)* 연계한 투 트랙(Two Track) 방식 진출 필요
 - * 가스매장장소 탐사, 가스전 굴착, 생산시설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가스의 생산까지를 업스트림, 가스의 수송, 가스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한 제품의 수송을 포함한 판매 부문을 다운스트림 이라고 함
 - 개발·생산의 업스트림에 수송, 정제 등의 다운스트림을 연계한 진출로 부가가치 극대화 달성

기업대출 증가와 신용위험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시 은 (selee@kdb.co.kr)

- ◆ '20.1~9월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은 97.1조원으로 전년동기의 2.6배, 이전 최고치인 금융위기 당시('08.1~9월)의 1.5배 수준으로 3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에 기인
- ◆ 한편, 기업은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은행의 기업 신용위험 경계감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후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될 우려

□ '20.1~9월중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은 97.1조원으로 전년동기의 2.6배, 이전 최고치인 금융위기 당시('08.1~9월)의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

- 동기간 대기업대출은 23.7조원으로 전년동기 순감소에서 순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대출은 73.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5%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악화,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은행권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자금공급에 기인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

	'07.1~9월	'08.1~9월	'09.1~9월	'18.1~9월	'19.1~9월	'20.1~9월	증가율
기업대출	58.2	64.3	20.7	40.0	37.7	97.1	157.6
대기업	5.9	20.7	△1.9	5.1	△2.1	23.7	-
중소기업	52.3	43.6	22.6	34.9	39.8	73.3	84.5

주 : 증가율은 '19.1~9월 대비 '20.1~9월 대출 증감액의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 한편, 기업은 성장성 악화, 수익성 저조 등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비율은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은 다소 악화

- 외감기업의 매출액은 '19.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하여 역대 최대폭 하락
 - 업종별로 석유·화학(△26.8%)은 국제유가 하락, 운송장비(△17.3%)는 자동차 수요 부진, 운수업(△15.8%)은 항공사 여객수송 감소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크게 발생
 - 금융위기 당시에는 매출액이 3개 분기('09.1~3분기) 감소후 빠르게 회복하였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점은 우려 상황

-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20.6월말 87.0%로 '19.6월말(83.5%) 대비 3.5%p 상승
 - 특히,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22.3%로,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정되었던 부채비율이 최근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외감기업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 %)

	'08년			'09년				'19년			'20년	
	2Q	3Q	4Q	1Q	2Q	3Q	4Q	2Q	3Q	4Q	1Q	2Q
매출액 증가율	24.8	28.6	13.3	△0.8	△4.2	△3.1	17.4	△1.1	△2.8	△0.5	△1.9	△10.1
제조업	26.0	29.9	12.6	△4.0	△5.8	△2.0	21.6	△1.7	△3.8	△2.4	△1.9	△12.7
비제조업	22.7	26.4	n.a	4.8	△1.2	△5.0	11.1	△0.3	△1.4	2.2	△1.9	△6.5
매출액 영업이익률	7.6	5.9	1.7	4.6	5.4	7.0	5.0	5.5	4.8	2.6	4.1	5.3
부채비율	95.4	104.3	108.3	116.3	109.7	105.1	101.7	83.5	83.5	84.3	88.2	87.0
제조업	92.7	102.6	102.3	110.4	100.9	95.4	89.7	63.7	64.9	65.0	67.8	67.4
비제조업	99.3	106.7	117.9	125.9	124.1	121.7	121.4	118.0	116.3	117.5	125.7	122.3

주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x 10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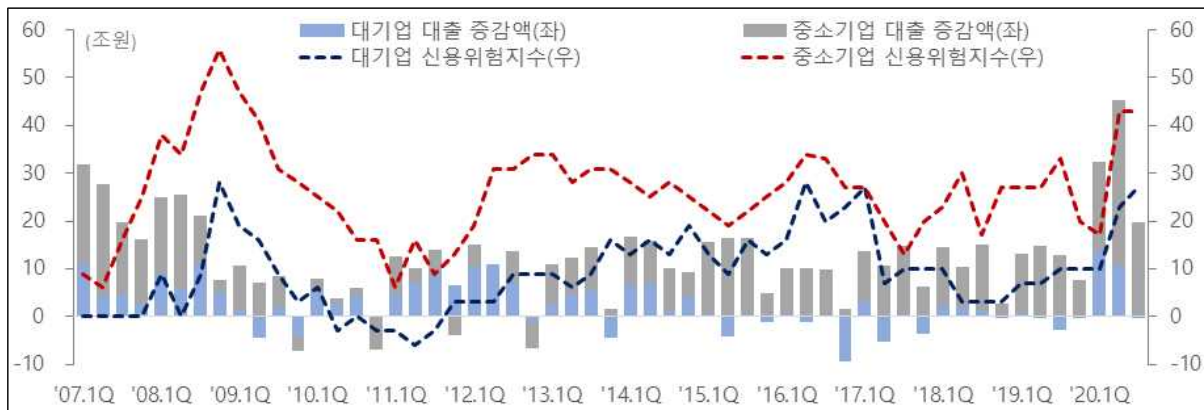
□ 국내은행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이후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될 우려

-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경계감을 나타내는 신용위험지수도 '20.2분기부터 급증하여 부실위험 잠재
-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는 비제조업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 대출자산 부실화가 이연되는 가운데 최근들어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어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전망

* 금융권의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가 '21.3월 만료될 예정

** 연체율(%) : 0.53('19.6월) → 0.57(9월) → 0.45('19말) → 0.49('20.3월) → 0.39(6월) → 0.47(8월)

기업대출 증감액과 신용위험지수 추이



주 : 대출 증감액은 예금은행의 분기말 대출잔액의 증감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KfW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서대훈 (kdb14@kdb.co.kr)

- ◆ KfW는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기후관련 지원목표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중
 - '19년 기준 기후변화·환경 분야에 대한 신규 지원금액은 297억유로로, 전체의 38.4% 차지
-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맵핑 및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TF 권고안 등의 선제적인 도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중

□ 정책금융기관인 KfW가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측면에서 적극 지원

- KfW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주요 분야로 기후변화·환경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지원목표를 확대
 - 신규 약정액 중 기후변화·환경 분야에 대한 최소 지원비율을 '12년부터 35%로 설정해왔으나, '19년에는 38%로 비율을 상향
 - '19년 전체 신규 약정액 773억유로 가운데 기후변화·환경 분야에 297억유로 (38.4%) 지원

KfW의 주요 분야별 지원금액 ('18~'19년 기준)

(단위 : 십억유로)

	'18년	'19년
기후변화·환경	30.3 (40.1%)	29.7 (38.4%)
세계화	16.6 (22.0%)	19.9 (25.7%)
사회적 변화	9.1 (12.1%)	11.5 (14.9%)
디지털·혁신	3.9 (5.2%)	2.1 (2.7%)
기타	15.6 (20.6%)	14.1 (18.3%)
합계	75.5 (100.0%)	77.3 (100.0%)

주 : 신규 약정액 기준

자료 : KfW(2020), "Sustainability Report 2019"

- 기후변화·환경에 대한 지원실적은 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지원으로 구성
 -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화(Energy-efficient construction and refurbishment, 112억유로), 생산시설 및 공정 등의 에너지 효율화(KfW Energy Efficiency programme 48억유로),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설비(Renewable energy programmes, 29억유로) 등으로 지원

□ 또한, KfW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TF 권고안 지지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 추진중

- '19년부터 신규사업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맵핑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맵핑결과를 보면, 다양한 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지원중
-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15.9월 UN회원국들이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경제·사회·환경 전분야에서 '30년까지 달성해야할 17개의 목표

KfW 그룹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맵핑 현황 ('19년 기준)



자료 : KfW 홈페이지

- 유럽 정책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TCFD 권고안*을 지지하는 등 기후금융 선도를 위한 자체적인 변화 시도중
 - '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
 - 다만, 아직 초기 단계임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기회요소 파악 등 모든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TCFD)가 제시한 권고안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지배구조·전략·리스크관리·지표 및 감축목표 측면에서 제공할 것을 제안

KfW의 TCFD 권고안에 따른 주요 공개 내용

구분	내용
지배구조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반영하여 사업부문의 계획과 목표를 조정 · 기후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신용리스크관리→부문별 위원회→신용리스크 위원회→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
전략	· 환경관련 최소 지원비율을 38% 이상으로 설정 · 기온이 2도 상승하다는 가정으로 시나리오 분석 * 분석결과 : 주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석유 및 가스부문의 경우, 차입자들이 탄력적인 사업분야 및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 등 위험을 줄일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았음
리스크 관리	· 기후위험 중 전환위험이 주로 신용리스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개별약정 수준, 전체 포트폴리오 수준 등에서 파악
지표 및 감축목표	· 감축목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중이나, 현재 건물의 직간접적인 에너지 소비, 출장업무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표

자료 : KfW(2020), "Sustainability Report 2019"

노 코드(No-code) 소프트웨어 현황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최 성 호 (sungho.choi@kdb.co.kr)

- ◆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노 코드(No-code) 도구의 등장으로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음
- ◆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편화 시키는 트렌드의 변화로 새로운 기회 창출 제공 및 그에 따른 보안 관리 중요성 대두 전망

□ 디지털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노 코드(No-code)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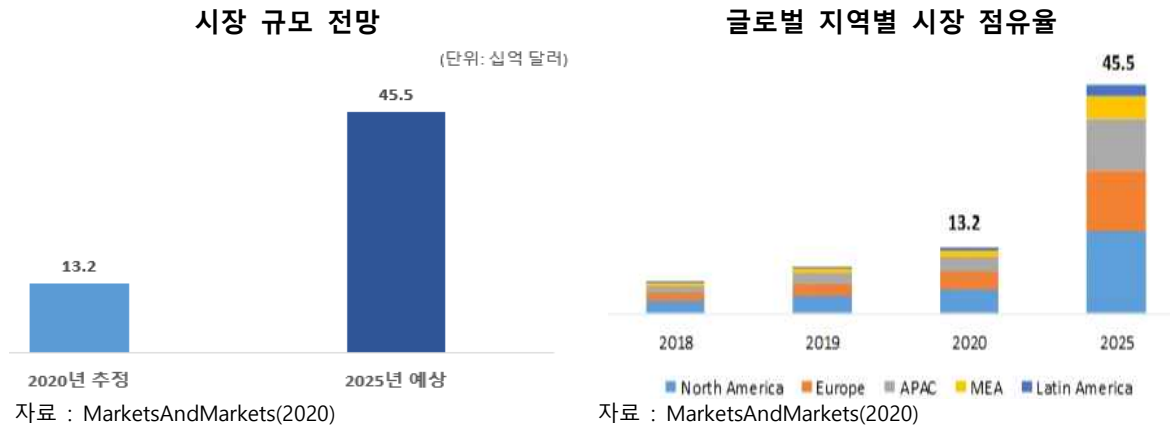
- 프로그래밍 지식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노 코드(No-code) 도구로 쉽게 개발 가능한 시대로 진입
 - 노 코드란? 프로그램 코딩(Coding)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현재는 로우 코드(Low-code)*와 함께 같은 소프트웨어 범주로 그룹화되어 시장에서 성장 중
 - * 최소한의 프로그래밍으로 짧은 시간내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노 코드 도구는 GUI 기반의 'Drag and Drop' 방식으로 개발자 없이 동작하는 앱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초기 모델 평가에 유용
 - * 개발 접근법 중의 하나로 시스템 기초 모형(프로토타입)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며 개선해가는 방식
 - 기업의 실무자들이 IT 부서 도움없이 업무 화면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 코드 도구가 활용되고 있음
-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관련 기업 인수 및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 규모는 점차 빠르게 성장
 - 구글, 지멘스의 노 코드·로우 코드 업체 인수와 MS의 AI 기능을 결합한 신제품 출시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의 제품 출시 및 업체 인수 현황

기업명	내용
MS	'16년 출시한 'Power Apps'에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발표('20.4)
구글	노코드 개발 업체인 '앱시트(AppSheet)' 인수('20.1)
지멘스	로우 코드 개발의 선두업체인 멘딕스 인수('18.10)
아마존	'허니코드' 베타버전 출시('20.6)

자료 : 각 기업 발표 자료 참조

- 글로벌 노 코드·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 시장 규모는 연평균 28.1% 성장률로 '20년 132억 달러에서 '25년 455억 달러로 성장 전망. 전 세계 각 지역의 고른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북미 시장의 경우 MS, 세일즈포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활발한 공급으로 점유율 확대 예상



□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트렌드의 변화로 새로운 기회 창출 제공 및 그에 따른 보안 관리 중요성 대두 전망

-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가 앱·웹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업무 및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가속화 전망
 - 현업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발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 노 코드 도구의 기능성과 호환성 수준의 지속적 진화로 활용한 창업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 본격화 예상
 - 디지털화 흐름에서 소외된 영역(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
- 노 코드 도구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제공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데이터를 표출하는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손쉬워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성에 대한 관리 중요성 대두
 - 비 IT 인력의 경우 해당 지식과 이해도의 부족으로 민감한 정보 취급 및 처리에 있어 기업의 보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예방 대책 필요
 - 전통적 방식으로 개발된 앱·웹에 적용한 보안 테스트를 동일하게 노 코드로 개발된 결과물에도 적용 필요

금리 · 환율 · 주가

금리 국고채3년 0.888% (1.9bp ↓), 신용스프레드 59.7bp (0.8bp ↑)



환율 원/달러 1,147.4원 (5.9원 ↓), 엔/달러 105.41엔 (0.22엔 ↓)



주 가 코스피 2,341.53pt (2.11% ↓), 코스닥지수 833.84pt (4.33%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99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